



놈펑이들의 9월

라운아띠 17기 캄보디아 프놈펜

하늘이 예쁘고 파인애플이 맛있는 이곳은 캄보디아 !



1. Arrive in CAMBODIA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한국을 떠나 이곳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다. 처음 만난 캄보디아 프놈펜은 매우 덥고 습했다. (바기오 팀이 끝까지 남아 배웅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줬다)

2. YMCA Learning Center



10월부터 두 달 간 함께 공부하게 될 아이들을 미리 만나보게 되었다. 푹푹하고 아주 귀엽지만 반나, 델리, 닉파, 니까 등 아이들 이름이 생소해서 외우기가 어렵다. 이제는 우릴 만나면 한국어로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3. Elderly People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집에 찾아가 준비해 간 물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어가 서툴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하는 그 '무엇'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4. Street Children



우푹 선 사원 앞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판자촌이 나온다. 이곳에 Street Children을 위한 YMCA Leaning Center가 있다. Street Children과의 활동은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5. Training Khmer Language



매일 저녁 5시 반부터 한시간 동안 차이 선생님과 함께 크메르어 공부를 한다. 이제 시장 정도는 혼자서도 거뜬하다 ! 크놈 쩡 니지여이 피어싸 크마에 띵 ! (=나는 크메르어를 조금 할 수 있다)

6. P'chum Ben Day



캄보디아 추석을 맞이하여 YMCA 선생님들과 캄보디아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의 집에 찾아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행사가 있었다. 무릎을 꿇고 부모님께 음식을 드리는 아이 모습을 보며 슬쩍 눈물을 닦으시는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고,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났다. 캄보디아의 추석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7. Travel to Siem Reap



캄보디아 추석 연휴 기간동안 씨엠립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 와트에도 다녀왔는데, 일출을 보겠다고 새벽 4시부터 출발하고 또 사원의 상당한 크기에 놀란 종아리 근육 덕분에 사원에 다녀온 다음 날은 쉬는 날이 되었다. 버스를 놓칠 '뻔' 해서 여행도 가지 못할 '뻔' 하고, 하여간 우여곡절 많은 'fun fun'한 여행이었다.

8. Prepare for Teaching



10월부터 두 달간 YMCA Learning Center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 특히 한글 수업에서 윷놀이를 하기 위해 두루마리 휴지로 만든 윷이 인상 깊었다. 교육자료로 만들어진 윷, 과연 어떻게 쓰였을까? (농평이들의 10월을 기대해주세요 !)

우리들의 이야기

'꼬마'로 산 한 달 -진호

9월 7일 나에겐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동안 수없이 가보고 싶은 나라 들은 가봤지만 동남아 국가는 처음이라 설레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가는 것은 꽤나 신선한 경험이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나의 감정은 그리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습하고 너무 덥고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었다. 즉 나의 캄보디아 첫날은 최악이었다.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생활하니 정 말 모든 것들이 안 좋게 보였다. 다른 팀원들은 잘 적응하는데 나만 적응 잘 하지 못 하 는 거 같아서 조금 짜증이 났다. 그리고 YMCA간사님들이 영어를 쓰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 패닉이 왔다. 그동안 공부한 게 헛수고가 되는 느낌이 너무 싫었다. 하지만 팀원들의 격려 덕분에 이러한 패닉에 잘 벗어날 수 있었다. 9월 말은 캄보디아 추 석이라 온 지 2주 만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언젠간 휴가를 가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다. 그렇게 우리는 1주일간 여행을 보내고 다시 Y로 컴백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업을 준비하는 1주일을 보냈다. 이로써 9월을 평가한다면... 우리의 9월은 다사다난 했던 달이었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달이 아니었나 싶다..

'니꼬'로 산 한 달 -성열

프놈펜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고 모든 것이 낯설었다. 9월은 정말 무엇을 했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독거노인을 찾아가 식료품을 전달해 드렸는데 고맙다고 눈물을 보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나 또한 뭉클했다. 하루하루 배고픔을 견디며 홀로 밤을 보내는 모습이 머릿속으로 그려졌고 집이 좁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캄보디아 YMCA에서 수업에 들어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아이들과 대면하였고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밝은 모습이었고 준비를 잘해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베싸이'로 산 한 달 -지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기가 끊겼다.
전기가 돌아오자 물이 끊겼다. 물이 끊긴 채 3일을 지냈다.
당연하게 써오던 것들이 안 나오자 당황스러웠으나 점차 익숙해졌다.
물이 조금 나오는게 기쁜 일이 되었고 1시간이라도 나오면 행복했다.
한국과는 다른 환경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새 여기도 익숙해졌다.
사람들과 만나는데 즐거워졌고 어설폰 크메르어도 쓰는게 재밌어졌다.
그렇게 천천히 캄보디아와 친해지고 있다.

이제 여기에서 나는 무얼 하려나.

'레이'으로 산 한 달 -은선

캄보디아에 온 지 한 달이 된 지금도 여전히 내가 캄보디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고 즐겁다.

한국을 떠나오면서 스마트한 손전화와 5개월 간의 이별을 선포했고 그렇게 내 손에는 메모를 위한 작은 수첩과 볼펜, 달력, 카메라, MP3 그리고 친구들의 메일 주소가 들려졌다. 누군가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비효율적이고 느린, 답답한 삶이라 말한다. 그러나 빠르고 편리해서 두 손에 꼭 쥐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니 나에게서는 '시간'이 생겼다. 월 30만원씩 보장되는 기본소득을 상상하던 것처럼 내가 이제껏 상상하고 바라오던 시간이 정말로 주어진 것이다. 나는 지금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고, 나는 충분히 느리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는 하늘이 예쁘고 파인애플이 맛있는 캄보디아다 !

10월에 만나요 !